

# 소설·영화로 여는 '토론의 장'

### '20세기소설영화독본' 16년째 고전 등 내년 상반기 12개 작품 다음달 17일 '영화의집'서 진행 첫 작품은 '백년 동안의 고독'

'백년 동안의 고독' (안녕 하코부네), '베니스의 상인', '면도날' (면도칼의 모서리), '언어가 잡든 집', '올란도', '양들의 침묵'..

소설 원작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는 원 텍스트에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설이 영화화됐고, 팬들에게 원작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소설과 영화, 토론을 매개로 하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 (소설영화독본)이 새해에도 독자들을 만난다.

소설영화독본은 '동구 인문학당' 조대영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끌어오고 있으며, 16년째를 맞았다.

조 디렉터는 "소설영화독본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즈음에 만든 모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60회를 진행할 만큼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다"며 "그동안 읽고 본 소설과 영화만도 각각 360편씩에 이를 만큼 방대한 분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프로그램도 기대할 만 하다. (모임은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격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첫 작품 (1월 17일)은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백년 동안의 고독'. 2024년 '유평해' 답게 신화적인 작품으로 포문을 여는데, 이소설을 영화로 만든 테라야마 수지 감독의 '안녕 하코부네' 또한 신화적인 이미지가 강한 영화다.

지난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백년 동안의 고독'은 중남미 문학을 대변하는 '마술적 리얼리



'양들의 침묵'



'올란도'

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조 디렉터는 "어느 한 마을을 배경으로 백년에 걸친 한 집안의 역사를 환상적으로 풀어냈다"며 "원작을 일본 상황과 맞게 각색한 테라야마 수지 감독은 영화와 문학 등 예술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31일에는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 '베니스의 상인'을 만난다. 감독 마이클 레드포드는 '일 포스티노'와 '1984' 등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데 뛰어난 해석능력을 보여왔다.

조 디렉터는 "이번 작품은 시적인 대사들을 가급적 살려냈다.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며 "말 파치노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사일록을 복합적이며 개성적인 캐릭터로 재탄생 시켰다"고 했다.

오는 2월 7일 다음 작품은 서머셋 모ムの '면도날'. 이 작품은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와 함께 서머셋 모ムの 3대 장편소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나는 젊은이를 그렸다. 소설을 영화화한 '면도날의

모서리'에서는 빌 머레이가 명상과 배움의 길에 나서는 주인공 '래리'를 연기했다.

SF 작품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2월 21일은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로 알려진 테드 장의 '네 인생의 이야기'로 과학, 소설, 철학 등을 매개로 한 지적 사유의 탐험시간이다. 원작을 영화로 옮긴 드니 빌뇌브의 '컨택트'는 영화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였던 소설을 영상 언어로 새롭게 형상화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후에는 이언 매규언의 '칠드런 액트'를 비롯해 엘리스 워커의 '칼라 퍼플', 히가시노 게이고의 '언어가 만든 집',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 '양들의 침묵', '반지의 제왕 : 반지원정대' 등이 예정돼 있다.

조 디렉터는 "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는 심오한 문자 작품을 다채로운 영상언어로 풀어냈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설영화독본을 통해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며 사유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드들강변에서 '30년 詩 농사'

### 김항흠 시인 산문집 '풀씨는 힘이 세다'...농사 관련 일상 답아

김항흠 시인은 드들강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다. 30여 년간 그렇게 농사를 업으로 삼으며 시를 써왔다. 그의 나이 서른에 귀농을 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적잖은 풍파가 지나갔다.

시 외에도 그는 농사일기를 꾸준히 써왔다. 20여 년간 농사일기라는 계사판을 만든 후 일상을 기록해왔다. 일기엔 농사짓는 생활의 일면이 담겼다.

김항흠 시인 산문집 '풀씨는 힘이 세다' (걷는사람)를 펴냈다.

제목이 말해주듯 그는 자연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시인 특유의 서정과 따스한 감성으로 풀어냈다.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누이의 제안 때문이었다. "오빠 산문은 늘 따뜻해서 좋던 데"라는 말에서 산문집을 준비하게 됐다. 시인은 이전에 썼던 농사일기 등을 묶었다. 책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을 동행하며 농사와 더불어 살아온 길"이 담겨 있다.

저자는 "농사일기에서 갈등이나 감정의 토로는 되도록 삼가고 농사와 관련된 일만 썼다"며 "언제 된 일이 있었고 어쩌었다는 평면적 기록에 치중하면서 되도록 주관적 견해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고풍상을 뒤로하다 보면 부모님의 노고와 분에 넘친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서 오묘질 무예를 다듬던 형제들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가족에 대한 끈끈한 정,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체득했던 지혜 등을 시인의 눈으로 톺아낸다. 책을 읽다 보면 눈길을 끄는 문장들과 만나는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농사를 매개로 한 체험이라 힘있게 다가온다.



"아무리 빨아내도 어디선가 날아와 씹을 틈을 주는 풀씨들은 농사꾼들과 싸우며 자기 영역을 넓혀 왔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역시 세상에 시달리면서도 어디서든 풀씨처럼 힘을 내면서 살아왔다."

농사밭농사 외에도 하우스 경작으로 경황 없는 세월을 부대끼면서도 알콩달콩 살아온 이야기도 있다. 책은 '고생대를 지나온 비문', '도장골 연대기', '빛방울은 잔소리를 좋아해', '강변에서 그리움을 짓다' 등 다채로운 농사 경험과 드들강변에서 보았던 4계절의 풍광이 녹아 있다.

그의 문장이 주는 힘은 따스하고 미려하다. 한번쯤 곱씹을 만하다. "누구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없다. 삶의 고통을 반반 나누며 아껴주고 안아 주던 시간, 되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시간을 더듬다보면 거기엔 사랑이 무진장 넘쳐 흘렀음을 느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림과 음악, 아름다운 시너지

### 마하나임 앙상블 '송민경 피아노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Op.68'과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미술'을 모티브로 음악을 창작했다는 것.

마하나임 앙상블이 '송민경 피아노 독주회'를 오는 28일 금호아트홀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19세기 음악가 슈만과 무소르그스키의 작품들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들려준다.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Op.68' 수록곡 '멜로디'와 '작은 소곡'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리틀 에뛰르', '서곡과 작은 푸가', '포도 수확철의 노래' 등도 들려줄 예정이다.

대담한 화성과 변칙적 리듬을 구사하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수록곡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작품은 10장의 그림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무소르그스키의 친한 친구였던 화가 빅토르 하르트만이 사망하자 그의 유작을 모아 열었던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다.

'비틀로', '난쟁이', '고성'을 비롯해 '힐러리 궁전', '알에서 깨어나지 않은 병아리들의 발레' 등



를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송민경(사진)은 전남대 음악학과, 미국 신시네티 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오리건음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전남대, 송원대, GIST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마하나임 앙상블 관계자는 "작년에도 '슈만 리사이틀' 등으로 광주 시민들을 만났던 기억이 선연하다"

며 "음악과 미술은 서로 친연성이 있는 것 같다. 두 예술 장르가 호응하며 아름다운 음악적 시너지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됐다

### 문화재청, 신라 금허리띠 등 보물 5건 지정도

정교한 장식과 섬세한 기법으로 고려 후기 동종(銅鍾·구리로 만든 종)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전북 부안 내소사의 종(鐘)이 국보가 됐다.

문화재청은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60년 만의 국보 승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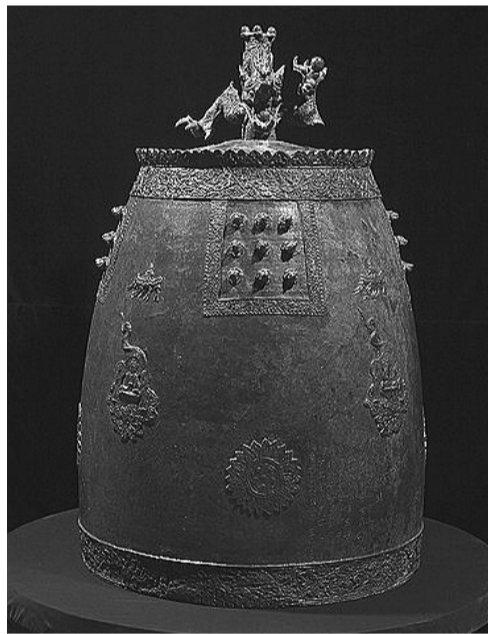
내소사 동종은 높이 103cm, 입지름 67cm 크기의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크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중기(鑄鍾記)에 따르면

이 종은 '한중서'라는 이름의 장인이 1222년 약 700근(약 420kg)의 무게로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 내소사 동종은 당대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기준작으로 여겨진다.

종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는 덩굴무늬 띠를 둘렀고, 아랫부분에는 연꽃 문양을 장식했다. 꼭대기 부분의 장식인 용뉴는 마치 공중을 비행하는 듯 역동적인 모습을 띤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신라 금속공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와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등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